

홍순무 · 홍웅표 부자 2인전 개최

기린미술관에서 8월 13일까지 국내 미발표 작품 포함 유화 13점 · 디지털조각 입체 작품 7점 전시

지난해 작고한 홍순무 화백과 그의 3남 3D조각가 홍웅표 작가의 부자 2인전이 8월 13일까지 기린미술관(관장 이현옥)을 훈훈하게 장식하고 있다. 제작년 여름에 기린미술관에서 26회 개인전인 홍순무화백 회고전을 하고 작년 봄에 작고하신 홍순무 화백이 미국에 있는 큰 아들 홍재표씨 댁에서 그린 유화들이 올해는 셋째 아들과 함께 기린미술관을 찾았다. 이번 전시에는 홍순무 화백이 미국에서 작업하고 보낸 중이던 국내 미발표 작품 포함 유화 13점과 디지털조각 작품을 하는 홍웅표의 입체 작품 7점을 전시한다. 홍순무 화백의 작품은 고향의 풍경과 인물들, 농악, 성화들로 다채로운 색채와 생동감 있는 인물의 인상과 표정이 정감있게 표현되어 있다. 홍순무의 예술은 일상 그가 체험하면서 살아온 생활 주변의 물상들을 보고 느끼면서 회화로 재창조해 온 것이다. 그의 작품이 순수하고 생명력이 있는 것도 꾸밈과 과장을 모르는 작화 태도 때문이며 그는 삶의



홍순무 화백 몬테레이 해변



홍웅표 작가 작은 기마상

진실을 예술의 힘을 빌어 표현해 온 것이다. 그의 아들 조각가 홍웅표의 작업은 컴퓨터 조형 프로그램인 Z Brush를 활용하여 디지털로 조형된 작품을 3D프린팅한 뒤, 후가공 작업을 거쳐 제작한 인체 구성작업이다. 홍순무 화백은 전주고등학교에서 5년간 봉직하다가 전주교육대학교에서 35년간 교수로 재직했다. 그동안 개인전 26회를 개최하였고, 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대학교 한국미술, 전북도립미술관 초대작가를 역임했다. 목정문화상이나 국전 등에서 심사위원장을 했다. 그의 아들 홍웅표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조소과를 졸업하고 미국 Savannah College of Art and Design 대학원 컴퓨터 예술 학과를 졸업했다. 서울 BH조형교육원 전담 강사를 하였으며, ZBrush디지털조형과 3D프린팅을 저술하고 개인 작품전을 7회 했다. /김재훈 기자

어린이 소리축제 프로그램 '풍성'

전주세계소리축제 기간 축제 속 작은 축제 인형극 · 서커스 등 다채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는 소리축제 기간 축제 속 작은 축제 '어린이 소리축제'를 통해 어린이와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선보인다. 이에 따르면 올해는 어린이 프로그램에도 수준 높은 해외 팀 공연까지 확장해 다양한 장르의 국내외의 수준 높은 작품들을 배치해 어린이들의 흥미와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했다. 먼저 14~16일에는 재활동 인형극 (피리부는 리어카 할아버지)와 폴란드 포커스 (마틸 인스트루먼트) 공연이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17~18일 우당탕탕 서커스 (목림삼(木林森)), 오브제 씨어터 (리틀 비저터), 세계음악여행 (아일랜드&이탈리아), 세계음악여행 (폴란드) 등 어린이 소리축제 1일권(1만원)으로 다채롭게 즐길 수 있다. /장은성 기자

'군산시민 위한 문화향연의 보고'

군산예술의전당, 관객 맞춤형 다양한 하반기 기획프로그램 마련

'군산시민을 위한 문화향연의 보고' 군산예술의전당이 하반기에도 다양한 장르의 관객 맞춤형 기획프로그램을 선보이기 위해 준비중에 있다. 현재 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진행 중인 '반쪽이의 상상력 박물관전'은 8월 25일까지 진행되며 전시기간 내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는 최정현 작가님과 만남이 인기리에 진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8월 24일에는 신나는 국악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공모사업 선정작으로 각지역의 소리를 찾아 떠나는 국악 창작연희극 '토리를 찾아서, 얼씨구!'가 대공연장 무대에 오른다. 가을의 입구에 들어선 9월 7일에는 색다른 뮤지컬이 관객들을 맞는다. 영국 추리소설 작가 아가사 크리스티의 미스터리 실종사건을 모티브로 제작된 화제의 창작뮤지컬 '아가사'가 그 주인공이다. 9월 21일에는 4050의 그 시절 그 시대 감성을 담은 송창식, 김세환, 정훈희, 기타리스트 함춘호가 출연하는 '세시봉 콘서트'가 찾아온다. 관객들에게 명절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 줄 멋진 공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9월 28일에는 일제강점기의 한글 시 낭독과 음악을 통해 만나볼 수 있는 색다른 국악 공연 '별 헤이는 밤' 빼앗긴 들에서 꽃처럼 침묵을 깨다'가 깊어가는 가을 속 예술의 정취를 보여준다. 한해의 끝자락에 다다른 11월 9일에는 사회적인 이슈인 뜨거운 지구의 환경 오염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자녀와 함께 해볼 수 있는 교육뮤지컬 '북극곰 로라'가 11월 29일~30일에는 정성훈, 이규형, 안세하, 김범 등 초호화스타 캐스팅으로 올 하반기 최고의 화제작인 코미디 뮤지컬 '젠틀맨 가이드'가 11월의 대미를 장식한다. '젠틀맨 가이드'의 경우 군산시민 할인율을 적용해 타 지역 대비 저렴한 가격으로 문화예술을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12월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가족, 친구, 동료들과 함께 따뜻한 연말을 느낄 수 있는 '송년 콘서트'로 어느 해보다 알찬 마무리를 지을 계획이다. 예술의전당관리과 홍양숙 과장은 "하반기에도 다양한 연령에게 다가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면서 "편안한 문화 힐링 공간으로 써 더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예술의전당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이재훈 기자

군산문화재단, 예술로 어울림 참여자 모집

군산문화재단(이사장 김임준, 이하 재단)이 근로자와 지역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11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2024 예술로 어울림' 참여자를 모집한다. '2024 예술로 어울림'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과 재단이 주관하는 사업으로, 군산국가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의 참여 기회를 높이고 문화예술 향유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진행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로 △핸드폰으로 브이로그 만들기 △그림일기와 에세이 책 만들기 △다양한 재료들로 콜라주 미술작품 만들기 △군산 바닷가 쓰레기로 업사이클 제품과 창업 아이디어 만들기 △편안한 몸과 마음으로 단련하고 창의무용 만들기 △근로자 밴드 만들기 △버려지는 옷과 패브릭으로 물감 만들기 등 전시 준비 등 총 8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이번 2024 예술로 어울림은 정주 지역과 업무 지역에서의 접근성이 높은 오식도동 복합문화센터를 비롯하여 금암동 군산콘텐츠포토리, 나운동 JB문화공간에서 진행되며, 문화예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료로 제공된다. 재단은 프로그램 참여자가 문화예술을 삶 속에서 향유하고 지역과 함께 창조하며 문화예술 매개자로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산=이재훈 기자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시즌1 풀벌 미스터리' 공연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서 10일 진행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시즌1 풀벌 미스터리'가 오는 10일 오후 2시와 5시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선보인다. 이에 따르면 '시즌1 풀벌 미스터리'는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이 운영하는 무대작품 제작지원사업에 선정돼 진행되는 창작극으로,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오마주로 새롭게 창작했다. 특히 원작과 비슷한 듯 다른 등장인물을 선보이며, 흥미로운 이야기를 펼칠 예정이다. 극을 준비한 '배우다컴퍼니'는 동시대 공연 예술이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으로 출발한 청년예술인 단체다. 이들은 연극과 창작뮤지컬을 통해 불편한 이야기를 담담하게 만드는 작품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 이번 공연에는 엘리스 역을 맡은 송림 배우를 비롯해 안혜지, 이혜지, 하현태 배우가 무대를 가득 채운다. 관람 연령은 7세 이상이며, 관람료는 30,000원이다. 다만, 친절한 지구인, 용감한 모험가 등 '배우다컴퍼니' 공연을 관람한 적이 있는 자는 별도의 증빙 없이 1만원이 할인된다. 관람권은 인터파크 티켓 및 전주티켓박스에



서 구매할 수 있다. 안지연 연출은 "이번 공연에서 성인 관객에게는 구조적 문제와 등장인물의 상징성을 해석하는 재미가 있고, 아동 관객에게는 엘리스의 용감한 이야기를 응원할 수 있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가족극"이라고 설명했다. 자세한 내용은 '배우다 컴퍼니' (010-6879-301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자치도문화관광재단, 중견예술인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사업 공모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은 중견예술인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중견작가들의 활동력 회복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포트폴리오 제작을 지원, 중견작가들의 예술 창작활동을 촉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접수는 7월 31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며, 재단 누리집(www.jbct.or.kr)에서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이메일(jbart2024@harmail.net)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공고일 기준 국내 주소를 두고 최근 20년 동안 활동 경력이 있으며, 현재

국내 지역 문화예술계에서 창작활동을 접점으로 하는 시각 분야의 만 50세에서 64세 사이의 중견 예술인이다. 지원내용은 작품제작비, 번역비, 프로필·작품 촬영비 등이며, 총 13명의 시각 분야 전문 예술가를 선정할 계획이다. 재단 관계자는 "향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중견작가들의 다각적인 예술 활동 재기를 위해 꾸준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예술인복지증진센터(063-230-7430)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기관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익자였다.

전주매일 캠페인

선화당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반침하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체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태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관풍각

내아